

意味論 序說

沈在箕 · 李基用 · 李廷玟, 集文堂
(초판 1984년 7월, 재판 85년 1월) pp. 218

이 기 동

학계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책이 한권 나왔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계신 심재기 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계신 이기용 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계신 이정민 교수가 집필한 「의미론 서설」이 바로 그러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 어휘의미론, 제 2부 형식의미론, 제 3부 화용론이다. 또 이 책은 학부 상급반이나 대학원 학생들에 쓸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각장의 끝에는 연습문제를 두어서 앞에서 배운 것을 확인·응용해보게 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의미론 서설」이지만 내용을 보면 서설의 단계를 넘어서 여러가지의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어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세 가지의 부분을 의미론에 모아놓은 점이다. 이러한 것을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방법론적인 편의를 생각하여 분할한 것을 다시 한곳에 모았다고 생각하면 이 책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언어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미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 가지의 이론적 모형만을 생각하여 낸 책이기 때문에 주어진 모형이 쓸모가 없어지면, 이에 따라서 쓸모가 없게 되는 책들도 많았다. 그러나 「의미론 서설」은 그 생명이 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부에서는 어휘의미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촘스키이전의 의미론에서 다루어진 여러 문제와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느 학문이든 학문에는 역사가 있기 마련이고, 오늘의 학문은 어제의 학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이것이 이미 발견되어 있는 것임을 알 때의 실망과 낭비를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부에서는 형식의미론을 다루고 있다. 촘스키가 형식언어의 문법을 빌

어서 자연언어의 문법을 기술하려고 시도하면서부터 수학, 논리학, 철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써서 의미론을 연구하고 있다. 제 2부는 이러한 연구에 접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차근차근하게 시켜주고 있다.

제 3부에서는 화용론을 다루고 있다. 촘스키는 능력과 수행을 구별하여, 문법에서는 화자가 갖는 언어능력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규칙과 제약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맥락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의 문제는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연구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뒤늦게나마 생각하여, 이러한 문제를 언어학에서도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연언어는 형식언어와는 다르다. 형식언어에서는 화청자가 없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언어란 화자와 청자의 의사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화청자의 전제, 예상,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참된 의미에서 언어를 연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제 3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체계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넓은 의미의 의미론을 접하게 해준다.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도 읽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보완되었으면 한다. 일반화만 주어져 있고 이에 따르는 예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다. 중판을 할 때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하면 더욱 더 좋은 책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예: p. 29, LL. 3-5).

120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접수: 1985. 12. 12)